

유자호 시인  
시와 선은 맑은 형제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16·17면

#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중일아합경〉 지주품

계의 향기, 들음의 향기, 보시의 향기는  
이 세상 향기 중 가장 훌륭한 향기.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8월 28일) ·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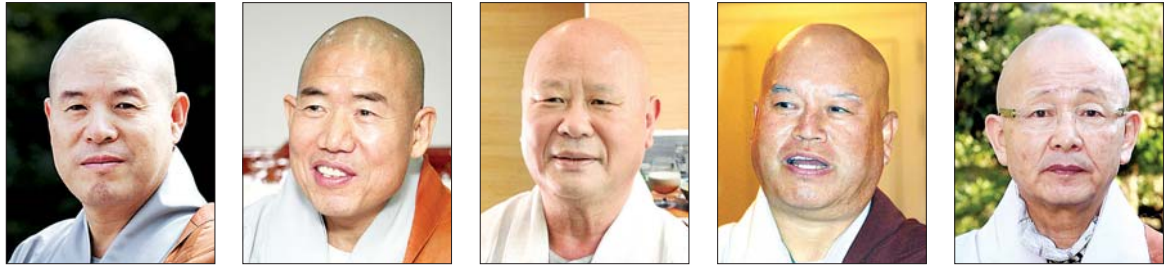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60호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 조계종 선거 후보들 종책 공약 ‘러시’

교구 권한 이양·비구니 권익 향상 등



자승 스님 보선 스님 대우 스님 장주 스님 혜충 스님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총 5명의 후보가 최종 입후보했다. 이로서 조계종은 완전한 선거 정국에 들어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무원장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후보 등록 결과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기호 1번), 前 총회회장 보선 스님(기호 2번)이 입후보했으며, 내장사 벽련선원 대우 스님(기호 3번), 장주 스님(기호 4번), 前 포교원장 혜충 스님(기호 5번)이 출사표를 던졌다.

금오문도회의 추대로 출마를 선언했던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최종적으로는 입후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또 다시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前 화엄·법화회·무소속을 기반으로 한 불교광장의 후보인 자승 스님과 舊무량·무자회·백상도량이 연대한 3자연대의 보선 스님이다. 그 만큼 선거 전부터 서로 진영에서 앞 다퉈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기민한 행보를 이어왔으며 이를 기반한 종책 공약 발표도 이어졌다.

특히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은 각각 평소 자신의 소신이 담긴 종책들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스님이 내놓은 공약들 중 가장 큰 공통점은 ‘교구와의 관계 재설정’과 ‘비구니 권익 향상’이다.

### 18~20일 선거 후보 등록

자승·보선 스님 양강구도

대우·장주·혜충 스님 출사표

### 각 진영 종책 발표 잇달아

‘교구·비구니’ 공통 키워드

### 자승 스님 4년 성과 연계

보선 스님 청정성에 방점

자승 스님은 9월 23일 열린 종책 발표에서 교구 중심제 실현을 첫 과제로 내놨다. 교구중심제에 대해 스님은 “우선 교구법을 신설해 교구의 지위와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각 교구에 독자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적인 종무행정 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교구가 가지는 특성과 장점을 장려해 교구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선 스님은 중앙과 교구의 ‘협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교구는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중앙은 중간 차원의 대정부·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교구의 공유사업 개발 △인사교류 활성화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비구니 권익 향상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자승 스님은 참중권 확대와 특별교구 설립을 통한 권익 향상 등을 제시했으며, 보선 스님은 포교·복지·종무행정 등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 확대와 특별교구 수용 등을 공언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전. 각 후보들의 종책 공약들이 종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평화의 기운 한반도에 두루 퍼지길

9월 2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에서 평화의 불이 사부대중의 염원 속에 안착되고 있다. 평화대회에서는 고불문과 평화선언과 함께 인순이, 이선희, 폴 포츠,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부산 UN기념공원에서 스님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룩제가 열려 한국전쟁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명예의 전당’ 운영 장기기증 희망등록 UP↑

###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 활성화 주력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명예의 전당’ 제도를 신설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올 1월부터 주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100명 넘게 희망등록자로 추천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명예의 전당’ 제도를 신설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과 중앙총회회장 지경 스님, 육군학예사학교 학림사 주지 정행 이익수 법사 등 3인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지민 스님은 지난 3월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102장을 전달했으며, 6월에는 197명을 추천했다. 정행 이익수 법사도 희망등록자 누적 284명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지경 스님은 104명을 추천해 세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특히 이 제도는 이웃종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심정민 사무총장은 “대형교회 같은 곳은 장기기증 예비 시간과 전담목사가 따로 있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전주교는 교구 차원에서 합동 희망등록을 할 정도”라며 “그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타종교에 비해 캠페인 활동은 가장 활발히 해왔지만 불자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웃종교계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비해 희

### 올해 1월부터 중점 실시

현재까지 3인 이름 올려

망등록수는 적으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사무총장은 “하지만 일회성 캠페인으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뿐 더러, 사람들은 선불리 희망등록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의 전당 제도는 희망등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지민이나 주변인들의 추천 및 독려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더욱

### 명예의 전당이란?

장기기증희망등록 추천 100명 이상하신 분들을 ‘마음기부 레드카트’으로 모십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코너를 개설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100명 이상 추천한 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지민 스님, 정행 이익수 법사, 지경 스님.

효과적이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동기부여가 돼 희망등록 확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지민 스님은 명예의 전당 헌액 후, 삼론종 스님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홍보 활동 동참을 권유해 9월 현재 삼론종 차원에서만 등록한 이들이 500명에 이르렀다.

지민 스님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1:1로 만나 장기기증 홍보를 했다. 앞으로 삼론종 소식지를 이용한 홍보와 법회를 통해 교구별로 생명나눔 동참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장교후보생과 신도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한 정행

이익수 법사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 잘 몰라 망설이던 장교후보생들도 지금 당장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이라는 점을 이해한 뒤 쉽게 등록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명예의 전당 제도 뿐 아니라 10·30·50명 단위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추천한 이들에게도 포상해 장기기증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일면 스님은 “스님과 불자들이 생명나눔운동 홍보에 솔선해 지민 스님, 정행 이익수 법사, 지경 스님 이후로도 제4·5호의 주인공이 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종책 선거의 척도 ‘종책 토론회’ 열리나

### 조계종 선관위 23일 회의서 결의... 이르면 10월 초

각 후보자들간의 종책 검증을 위한 종책 토론회가 빠르면 10월 초에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는 9월 23일 제277차 회의를 열고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종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4일 각 후보자 측 관계자를 만나 종책 토론회 일시와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종책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9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34대 총무

원장 선거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자승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도 9월 21일 종책검증을 위한 토론회에 임할것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년분 이상 사찰분담금 총액을 체납한 스님의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신종일 기자

### 960호 INDEX

시방세계 5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막



신행 6  
전국사찰, 개산대제 맞아 법회 마련

학술문화제 9  
구산 스님 재조명 학술대회 열린다

문화 20  
여공 스님 ‘칼끝장엄’展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무신’ 촬영지 충주 미륵대원지



### 새연재 14면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신종일 기자  
일본 불교 고찰을 가다

## 불광 창립 39주년 기념 및 불광법당 준공법회

10월 13일(일)  
오전 10시 30분, 신축 불광법당

2년전 불광의 불자들은 ‘제2의 불광운동’이라는 원력을 세워 불광법당을 새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광이 세상에 나뉘 39주년을 맞이하여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모시고 또 다른 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광이 시작하는 제2의 출발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광 국제학술포럼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 10월 19(토) ~ 20일(일), 신축 불광법당

#### 첫째 날(19일) 오후 1시 30분 ~ 6시, 사회 조은수(서울대)

- 틈났한 스님과 조화롭고 깨어있는 수행공동체, 플랫폼리지  
티칭팀김(플랫폼리지 아시아성학불교연구소 소장)
- 생태적 기업과 나눔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쇼케 공동체  
피콜 와니자(피차트(태국 송글라 국제불교대학)
- 케이크 공동체 팬들의 정산: 신의 임재와 세상의 치유  
스티븐 A. 스미스(클레이몬트 매케나대학 명예교수)
- 떼제 공동체와 젊은이들 희망과 의미를 찾아서 앤서니 수사(서경대 명예교수)

#### 둘째 날(20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20분, 사회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승가의 현대적 모델을 위한 모색조성택(고려대 교수)
- 한국의 불교공동체와 불교의 미래 유정길(전 예코부터 대표)
- 성운대사의 인간불교 이념과 특징 마오광(불광산사 국제부장)
- 승가와 재가의 평등을 지향하는 불광산사와 불광회 마오광(불광산사 인간불교연구소 연구원)
- 승가와 재가가 함께 만드는 세계적 수행 공동체 마하시  
명상센터 담마나나(마하시 명상센터 국제불교대학교 교수)

